

# ‘보잉 737’ 운항 재개?... LCC, ‘울며 겨자먹기’ 도입하나

美 연방항공청 운항중단 해제 압박 LCC, 사고 전 계약했던 물량 많아 위약금 책임 클 경우엔 그대로 도입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난 심화 전망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가 곧 운항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18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맥스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덕슨 FAA 청장은 최근 737맥스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이며, 수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해제에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조종사들을 교육하는데 30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737맥스의 실제 운항 재개는 이르면 30일 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737맥스가 잇따라 추락하자 지난해 3월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보잉 항공기.

737맥스는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 각각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항공기가 잇따라 추락하며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 국에서 운항 정지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기종을 2018년 말 들여왔던 이스타항공도 이미 지난해 3월부터 2대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보잉 관계자는 “지금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정확한 운항 재개 시기는 규제 당국 승인 하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일정은 규제 당국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며 “한국에서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 국적 항공사들과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항공업계, 특히 LCC(저비용항공사)가 이전에 계약했던 737맥스 물량을 당장 들여와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보유 항공기마저 운항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새로운 항공기의 도입으로 외려 고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다.

737맥스는 추락사고 이전 단거리에서 중거리 노선으로 시장을 넓히려던 저비용항공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LCC 업계도 다수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제 이 같은 도입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대부분 저비용항사는 경영난 심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기준 비상장사로서 공시의 의무가 없는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전 저비용항사의 영업손실은 도합 1900억원을 넘는다. 항공사별 영업손실은 ▲제주항공 701억원▲진에어 492억원▲에어부산 424억원▲티웨이항공 311억원 등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계약상으 따라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인수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는 계약에 따라 다르다. 코로나 상황에 전부 그라운드(운항 중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기종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할 항공사들이 있을지 싶다”면서도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클 경우에는 고스란히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리스 운용 쪽으로 바꾸는 것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사마다 체결한 계약내용이

상이하, 항공사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는 만큼 737맥스의 도입을 미루거나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반면, 계약 조건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 도입을 이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국내에서 737맥스의 운항이 이뤄지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선행돼야 해, 아직 그에 따른 타격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선불리 뭔가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것 같다”며 737맥스 운항 재개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다 다르다. 보잉사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닌, 대부분 리스 계약을 했을 것이다.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시점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변동이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새 항공사들이 바로 새 기종을 도입할 여건은 안 될 것 같다. 맥스가 운항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시점은 상당한 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한화큐셀, 중국 내 특허 무효 심판서 승리

중기업이 퍼크셀 관련 낸 특허 소송 특허 유효로 중서 지재권 보호 확인

한화큐셀이 중국 내 소송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큐셀은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며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했다. 본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 3개사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지난해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 및 판매 금지와 함께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갖게 됐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 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할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조경수 교통안전본부장, 현대·기아차 권오룡 모빌리티플랫폼사업실장, KB손해보험 김민기 자동차보험부부장, 현대커머셜 이동원 커머셜기획실장 등이 차량 빅데이터 연계 금융서비스 추진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현대·기아차, 교통 빅데이터로 금융 연계

교통안전공단 등과 손잡고 서비스

현대·기아자동차가 공공기관, 금융사와 함께 상용차 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커머셜, KB손해보험과 함께 교통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교통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고 안전 운전 문

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 단말기 및 차량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 운행 데이터 등을 수집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한다. 현대커머셜과 KB손해보험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행 행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운전 습관 연계 보험과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조정해주는 상품을 개발한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오브제컬렉션 체험해보세요”... 인테리어도 제안

전국 주요 베스트샵에 체험존 조성

LG전자가 오브제컬렉션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LG전자는 최근 전국 주요 LG 베스트샵에 오브제컬렉션 체험존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공간은 LG 오브제컬렉션으로 주방과 거실, 세탁실 등등을 꾸며놓았다. 가전과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LG전자는 다양한 색상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세련된 예술가의 공간에 어울리는 홈 아틀리에 패키지 ▲화사한 감성의 공간에 맞는 홈 가든 패키



LG 오브제컬렉션 체험존.

/LG전자

지 ▲모던한 안정감의 공간에 적합한 홈 카페 패키지 등을 제안했다.

LG전자는 올 연말까지 LG베스트샵에서 LG 오브제컬렉션을 3대 이상 동시에 구매하고 LG전자 멤버십 앱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에 최대 200만 원 상

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대상 고객 중에는 100명을 추첨해서 인공지능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R9 씽큐,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무선 이어폰 LG 톤 프리 등을 증정한다.

/김재용 기자 juk@

##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개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책임’이라는 콘셉트로 진행 중인 아이오닉(IONIQ) 브랜드 캠페인 ‘아임 인 차지’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캠페인 메인 영상에는 과거 현대차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한 친환경 철학을 갖춘 유명인과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출연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오닉브

랜드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을 표현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디자이너 마리아 코르네호는 자연 친화 소재를 활용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을 배경으로 ‘패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영국의 유명 환경운동가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드로스차일드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방탄소년단은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성운 기자